

뮤지컬 ‘삼국유사’ 군위 공연 성황...서울로

은혜사 본말사 참여 전석 매진
수준 높은 연기·구성 ‘박수갈채’
6월4~7일 세종문화회관 재연

경북 군위에서 첫 선을 보인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가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서울로 향하게 됐다.

군위 인각사와 군위군이 공동으로 투자 제작한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의 초연이 지난 12월28일과 29일 양일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권2책 분량의 <삼국유사>는 보각국사 일연선사(1206~1289년)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한 최고의 역사서로 <삼국사기>에서 기록하지 않은 고조선 역사와 가락국기 등을 담고 있어 그 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는 방대한 내용 중 지금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세가지를 선택했다. 고조선의 단군왕검과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야기, ‘서동요’로 잘 알려져있는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러브스토리를 일연선사가 세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각색했다.

군위에서의 첫 공연은 널리 알려진 스테프와 출연진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첫 무대가 펼쳐지자 수준 높은 노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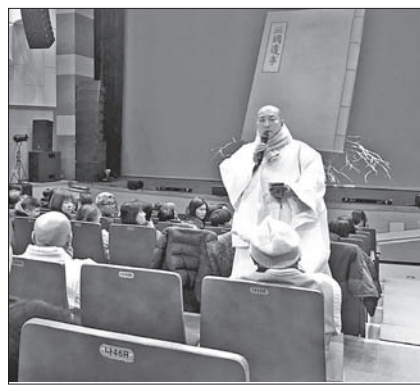


연기, 잘 짜여진 스토리 구성 등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대화합의 메시지가 담긴 발문 내용 일부가 자막으로 소개될 때는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제10교구본사 은혜사와 말사 신도들의 단체관람 속에 500석이 모두 매진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특히 은혜사 관장 돈명성님과 주지 돈관스님, 선본사 주지 범성스님, 인각사 주지 정화스님을 비롯한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도 공연을 관

람했다.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은 공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일깨워준 보각국사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정신을 뮤지컬로 재탄생시켜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공연에서 그치지 않고 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밖에서도 감동이 이어졌다. 선화공주 역을 맡은 란연 등 모든 출연진이 현장에서 사인회를 열었으며 관객들과의 사진 촬영에도 응하



우리 민족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삼국유사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돼 첫선을 보였다. 군위에서 열린 2회의 공연은 모두 전석 매진의 대성공을 거뒀다. (사진 왼쪽) 공연에 앞서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에서 관람 온 진순우 씨는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는데 공연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삼국유사가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는 오는 6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재공연될 예정이다. 서울에 이어 경북 경산에서도 공연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군위=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새로운 신행 제시한 상월선원 한국의 ‘붓다가야’ 되길 발원”

홍다영 기자의
현장에서
hong12@ibulgyo.com

한국불교사상 유래 없는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다. 그곳의 열악한 환경을 떠올릴 때마다,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9명 스님들의 동안거 정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월선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황량한 불모지나 다름없던 공간에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지금은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선원 아래 천막법당에는 스님들 원력을 본받으려는 전국의 불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금강석 같은 견고한 지혜를 얻기 위해 가열찬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남대문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시끌벅적한 야단법석까지 더해지면서 상월선원은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결사도량이자, 새로운 신행 문화를 여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20년 새해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떠들썩한 법석이 이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교 지성인들은 토론회를 열어 천막결사의 의미를 짚고 과제를 모색했다. 점근이 어려운 여느 선방과 달리, 재가불자들이

들이 동안거 결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불교 신행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모두가 함께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천막결사의 신행운동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즉시 소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웅철 교수도 “외호하는 대중들은 변화의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 사회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온 2019년의 마지막 날은 원로의원 자광스님을 법사로 송년법회를 병행하고, 타종식으로 경자년 새해를 함차게 열었다. 이날 새해 첫 손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회 여사가 방문해 스님들 건강을 묻고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곧게 잠긴 선방문은 동안거 해제 하루 전날인 2월7일에서야 비로소 열린다. 9명 스님들은 입방 전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 가셨듯 황량한 뜨락이 붓다가야가 될 것”을 발원했다.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결사도량의 정진과 원력이 모아져 상월선원이 한국의 붓다가야로 자리매김하길 발원한다.

참불선원 신도들 보살행 눈길

강남구청 성금 1000만원 기탁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스님)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의 정성을 전했다. (사진)

참불선원 서울신도회(회장 선상신, 전 불교방송 사장)는 지난 12월26일 초하루 법회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강남구청에 5000만원을 보시한데 이어 두 번째 이다. 선상신 신도회장은 “앞으로도 강남구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앞으로 힐링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참불선원에서 기탁해준 성금은 강남구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선원장 각산스님은 초하루 법회에서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길은 수행에 있다는 확신 하에 묵묵



히 강남에서 수행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나온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수행불교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불선원과 강남구청은 명상을 통한 지역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강남문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명상한류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힐링도시를 지향하는 강남구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누가될까? 김홍희 류완화 이영경 교수 후보

1월9일 이사회서 총장 선출 예정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로 김홍희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화 미술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 확정됐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경주총추위, 위원장 원명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는 지난해 12월2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주총추위 위원들은 출사표를 낸 10명의 소견발표를 듣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 김홍희, 류완화,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종 후보대상자로 선출했다.

이날 소견발표에서 김홍희 교수는 11대 전략을 제시했다. “불교종립대학으



김홍희 교수

류완화 교수

이영경 교수

로서 특성을 살리는 것을 비롯해 서울 캠퍼스와 연계해 학생을 확보하는가 하면 외국유학생 확대와 발전기금 모금으로 재정을 마련하겠다”며 “미래발전기획단을 설립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완화 교수는 ‘혁신’과 ‘융합’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경주캠퍼스의 장점인 불교, 역사 및 문화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학

문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융합전공·학과 등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영경 교수는 ‘다함께 동국’ (Together Dongguk)이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과 도약의 동국 2040’ 비전을 제시했다. “불교역사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해 학술연구와 사업을 통해 서울캠퍼스, 불교계, 종단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특성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과 대학역량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는 1월9일 열리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선학원은 본연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조계종으로 돌아와야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통교단입니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에 저항하며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수호하고 선풍진작을 위해 선각자 스님들이 조직한 결사체였습니다.

정혜사, 김용사, 직지사, 범어사 등에서 삼보정재를 출원했고 대선사 만공스님을 비롯해 적음스님, 석주스님, 청담스님, 현 중정예하 이신 진제스님께서 역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선학원은 본연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조계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1941년 3월4일부터 10일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유교법회(遺敎法會)는 당시 전국의 승려 6000여명 중 독신 비구승이 300여명에 지나지 않던 시절에 “조선 불교의 전통을 살리겠다”며 비구승 34명이 서울 중심가에서 개최한 대회였다.

“~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불교는 완전히 식민지 총독의 허가 없이는, 사찰의 이전·폐합으로부터 절간에 있는 온갖 재산, 기물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파국이라 지금 조선 중들은 자꾸만 일본 중처럼 변질이 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불조 정맥을 계승해 불려는 남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 사찰령과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을 하는 선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부치게 된 거울시다.”

— 1921년 5월 15일 선학원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한 보살계 계단. 석왕사 안국동 포교당에서 만공스님 법문 내용 중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